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회상

김영문 브루노 신부

가

가

가

가

( 41,40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1/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5,580

현재 참가 인원 -100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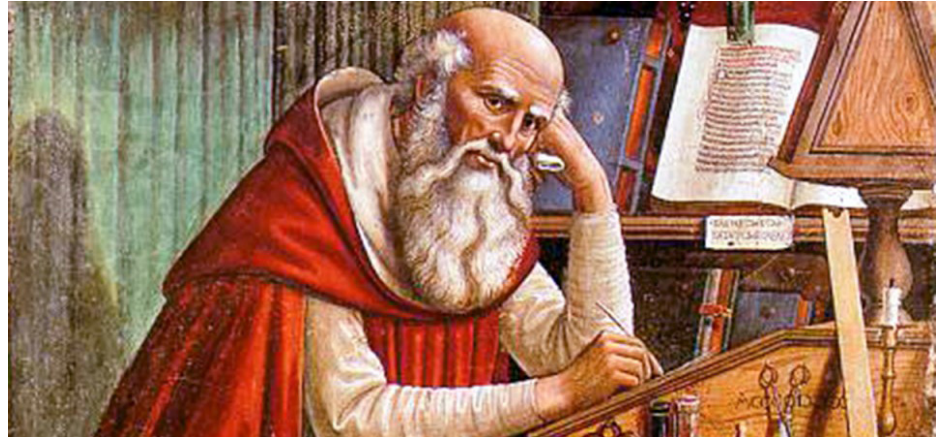
연중 제2주일(1/18)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37명	91명	243명	151명	46명	568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142, 143    예물 준비 성가: 421, 221, 219    성체 성가: 180, 501    파견 성가: 39					



#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대중화를 선도한 성 예로니모

「불가타」(Vulgata: 대중적)는 예로니모(347~419) 성인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의 라틴어본 성경이 원문에 매우 충실하고 정확한 번역이면서도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 로마 교회가 이를 공식적인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 번역 외에도 유명한 그리스 교부들의 성경 주석서들, 특히 오리게네스의 주석서들을 라틴어로 번역했고, 자신이 직접 구약성경의 창세기, 시편, 예언서,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태오 복음, 사도 바오로의 필립비서, 갈라디아서, 에페소서, 디모서 등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는 등 성경 연구에 몰두했던 인물이다.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그레고리오와 더불어 서방 교회 4대 교부로 꼽히는 예로니모는 성경 관련 저술 외에도 교의신학서, 이단 논쟁서, 수덕신학서, 역사서, 강론, 서간 등 다양하고, 목록만 열거해도 엄청난 양일 정도로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와 관련한 성화를 대부분이 펜을 들고 저술에 힘을 쏟고 있는 장면인 것도 그러한 방대한 저술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로니모는 347년경 북부 이탈리아 아퀼레이아 인근 스트리도니아 지역에서 태어났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던 그는 12세 되던 해 로마에 가서 엘리오 도나토라는 학자에게 수사학, 라틴어 문학 등을 사사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기도 이때 로마에 체류하면서였는데,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성지, 특히 카타콤바를 방문하면서 신앙을 키워 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때 리베리오 교황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프랑스 트리어에 정착해 정부 관리로 일하게 된 그는 이즈음 수도 생활을 접하게 되었고 결국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게 된다. 370년경 로마로 돌아온 후 복음적 공동생활을 시작했던 예로니모는 373년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아폴리나리우스 주교로부터 성경 주석 방법과 그리스어를 공부했다. 이후 칼치스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스어를 익히고 히브리어를 새로 공부했다. 379년 다시 안티오키아에 가게 된 예



로니모는 바울리노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았다. 고정적인 사목직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저술과 번역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380년경 콘스탄티노플에서 현직 총대주교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의 강의를 듣고서였다. 예로니모는 이때 오리게네스의 성경 주석 방법에 빠져들었고 오리게네스의 저서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성경 번역에 착수하게 된 것은 382년 다마스 1세 교황의 비서로 임명된 후 신·구약성경의 라틴어 번역 임무를 맡게 되면서였다. 번역 작업과 병행해 상류층 미망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수도 생활에 대한 이상을 교육했던 그는 이에 대한 적대자들의 의심과 비난에 부닥쳐 본의 아니게 로마를 떠나 386년 베들레헴에 정착했고, 이때부터 수도 생활에 전념했다. 예로니모는 이로부터 34년 동안 수도원에 머무르며 막대한 양의 저술·번역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예로니모는 한편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매우 열렬했다. 이전의 어느 교부도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을 명확하게 표현한 적이 없다고 전해질 정도인데, 그런 말처럼 그는 교회를 위해 싸웠고 교회에 적대적 입장을 보이는 자들은 원수처럼 여겼다. 일례로 오리게네스의 추종자였음에도 오리게네스 이단 논쟁이 일자 반대 입장에 서서 교회를 수호했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당시 교회의 큰 골칫거리였던 펠라기우스 이단을 없애는 데 힘을 모았다. 학자들은

그의 성경 번역 연구와 관련해 “성경을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무류성을 역설했다.”라고 밝히면서, 성경 본문 연구와 주석에 예로니모가 이처럼 주력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예로니모는 격한 성격과 신랄한 비평, 쉽게 화를 내는 한편 빨리 후회하는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의 결점보다 자신의 결점에 더욱 가혹했다고 한다. 한 교황은 돌로 가슴을 치는 예로니모의 초상화를 두고 “만일 그 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교회는 결코 성인으로 추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라틴 교부들 가운데 가장 박학했으며, 동시대인들 중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학자로 평가되는 예로니모는 성 아우구스티노로부터 “예로니모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일찍이 안 사람은 없었다.”라는 평을 받았다. 또 현대의 한 신학자는 “예로니모는 이전이나 동시대 사람 가운데 아무도 그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없었으며, 예로니모 이후 몇 세기 동안도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하는 데 적극했을 뿐이다.”라고 칭송했다.

● 예로니모 성인은 419년 9월 30일 베들레헴 수도원에서 72세의 나이로 선종했으며, 「신학교의 수호성인」, 「수덕생활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 공지 사항

## 1 미사 안내

## ① 성모 십심 미사

- 일시 : 2/7(토) 오전 10시 미사

## ② 설(구정)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2/15(주일) 오전 10시 미사  
(당일 오전 8시, 11시 30분, 오후 5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신청은 2/8(주일)  
까지 미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견진성사 안내

2026년 5/31(주일)에 견진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깊이 연결된 아주 중요한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모든 신자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 2026년 1월 25일까지

## 3 교무금 납입 증명서 발급

2025년도 교무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가족등록서에 등록된 이메일로 1월 말에서 2월 초 기간에 세금 보고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4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1/25(주일)
- 음식 봉사 : Redmond 구역
- 메뉴 : 제육볶음

## 5 성지가치 회수

재의 수요일(2/18) '재의 예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하여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치를 2/15(주일)까지 성당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6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7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 8 울뜨레아 월례 모임

- 일시 : 2/7(토) 오전 11시
  - 장소 : 101호 교리실
- 울뜨레아 2월 월례 모임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9 2027 세계 청년대회(WYD) 신청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더욱 깊이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참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하여 최종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관심자 신청서 마감일 : 2026년 2월 1일
- 신청서 파일 및 기타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 10 글로리 성가대원 모집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는 분.

- 대 상 : 모든 신자
- 연락처 : 장 릴리안 206-719-2063  
오 마리아 425-876-8593

##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 이사 8,23ㄷ-9,3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2독서** ..... 1 코린1,10-13.17  
<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4,12-23  
<예수님께서서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이계숙 이지연 지유선 유주연 최수영 한씨녀 곽노환 박채룡 이천우 김재호 이지연 신철순 이운선 신 정 이영수 이명희 백영숙  
유인진 조남용 김정순 황성만 이용명 이정원 이정애 김병민 백경열 서용원 김창문 고광운 배정규 이수진 강승자 박애령 이경원  
오면수 이장원 유경종 Sun Ki Choe

**[교무금 PushPay]** 이서영 이제용 최종국 안마슈 안정희 박주섭 구미경 박주원 김형근 최영석 유현주 성효진 고은우 황현선 강봉조 이상철  
윤성욱 박소영 **[감사 헌금]** 김명준 김한웅 정순도 이명희 탁희선 유인진 **[성소 후원 회비]** 이명희

주일 헌금	교무금	PushPay	구유 예물	2차 헌금(Church in Latin America)	감사 헌금
\$6,175.00	\$8,895.00	\$5,502.10	\$392.00	\$1,306.00	\$460.00





## 2026년 제34회 해외 원조 주일 담화 (2026년 1월 25일)

###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 + 찬미예수님!

제34회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1992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의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시절 많은 도움을 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6개국의 군사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약품과 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유엔 창설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4년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인구는 53개국으로 약 2억 9천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는 2000년대 초에 비해 전쟁 발발 건수와 사망자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재난으로 고향을 떠나고 있는 사람은 1억 2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또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도 당신처럼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마태 12,7). 최근 교황 레오 14세는 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Dilexi Te)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 문헌을 통하여,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주님을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 본성의 한계와 취약함을 함께 나누시고자 몸소 가난해지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 이 우선성은 결코 배타성이나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하느님께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특별히 마음에 품으시며, 당신 교회인 우리에게 가장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단호하고 근본적인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16항).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이웃 사랑은 첫째 계명 하느님 사랑과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음을 역

설하시며(26항 참조), 일상생활에서 재물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교회의 모범은 교부들의 가르침과 수도회의 헌신적 돌봄으로 계속되는 아름다운 전통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 모범을 지속하여,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묵시 3,9)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드립니다(121항 참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손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 9,22; 마르 10,52; 루카 7,50; 8,48; 17,19).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 25,34). 이들이 행했던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더 나아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자신에 관한 사랑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5-40). 특별히 진복팔단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슬픔, 온유, 의로움, 자비, 깨끗한 마음, 평화,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일 등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이와 연대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마태 6,9).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 신앙인이 됩시다.

이제까지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카리타스는 199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49개 사업에 한화 7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에도 10월까지 44개 사업에 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덕분에 한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2026년 해외 원조 주일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캠페인을 지속하며 분쟁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평화와 건강을 기도합니다.

시인 김용해 요한의 시 한편을 흥내 내봅니다.

가

가

2026년 1월 25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조 규 만 주교